

순천시, '랜선여행' 6권역 남도바닷길 공동프로모션 협약

순천·여수·광양·보성 속한 남도바닷길...年3500만 명 방문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행객들에 해당 시설 이용권 제공

순천시는 문체부 선정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6권역(순천, 여수, 광양, 보성)으로 6권역 통합 프로모션을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 추진을 위해 6권역에 해당하는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보성군을 포함한 21개 기관은 지난 6월 30일 광양 리호호텔에

서 '테마여행 10선 남도바닷길 공동 프로모션' 업무 협약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6권역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보성군이 속한 남도바닷길 권역으로 연간 3,50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이다. 랜선탈출 6권역 여행 프로모션에는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보성

군의 18개 민간 및 공공 관광시설이 참여해 6권역을 방문하는 개별 여행객들에게 해당 시설의 이용권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순천시는 주요 관광지 5개소를 1박2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입장권, 여수시는 해양레일바이크와 해상시티투어 이용권, 광양시는 와인동굴과 느랭

이골 입장권, 보성군은 대한다원과 울포해수욕장센터(또는 보성다비치콘도 입욕권)를 무료로 제공한다.

개별 여행객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이용권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이용권을 8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6권역 4개 지역 시설은 1인당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고 예산 소진시 별도의 안내 없이 행사가 조기 종료된다. 이용시설과 이용방법 등의 자세한 안내는 7월 27일 오픈되는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6권역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순천이 안전한 여행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군, '농촌미래 전략 수립' 공모사업비 500억 원 투입

2025년까지 농촌개발 및 생활서비스 향상에 집중 투자

보성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농촌 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5년까지 최대 국비 300억 원과 각 사업 지원 비율에 따른 지방비 200억 원 등 총 500억 원을 농촌 개발 및 생활서비스 향상에 투자한다. '농촌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협약을 통해 정책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이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보육, 교육, 보건, 복지 등 기초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한 '365생활권'을 실

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로써 보성군이 농촌 개발은 물론 보육과 교육·복지 등 기초생활 서비스까지 패키지로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보성군은 지역의 계층과 생활권, 기초 생활서비스 접근성 분석 등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생활거점 개선과 농촌 경제 활력 제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활문화 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 보육(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타부처 사업 등을 연계해 사



업 시너지를 높일 예정이며, 지역 안에서 보육, 교육,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충족되는 환경을 만들어 인구 유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보성=김덕순 기자

고흥군, 2019 도시민 귀농인 전국 1위

고흥군은 최근 농림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귀농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2019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귀농인이 전국에서 고흥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통계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작성한 행정통계자료로서, 전국 상위 5개 지역은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전북 고창군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는 2018년보다 귀농인이 4.6% 감소하였지만 고흥군은 4.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흥군은 민선 7기 들어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고흥사랑애 청년유턴·아이행복·귀향(귀농·귀어)귀촌 3대전략 50개 시책을 담은 인구정책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여수시,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고위험시설에 대상으로 시행된 전자출입명부(KI-PASS, 키패스)의 범시민적 활용을 목표로 홍보 및 제도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가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시설인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 8개 업종을 방문해 시설관리자용 앱을 97% 이상 설치하고 계도를 마쳤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고위험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QR코드를 생성해 적극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 시민 집중 홍보에 들어갔다. 지난달 24일 여천동을 시작으로, 25일 월호동과 쌍봉동 통장들을 대상으로 QR코드 생성 준비 및 필요성과 이용방법에 대하여 집중 홍보했다. 향후 QR코드 생성 시연을 요청하는 기관은 직접 방문해 안내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정성운 기자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 원탁회의 개최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단장 박시훈, 이하 사업단)은 제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신청을 앞두고 '문화도시 랩(Lab)'과 '찾아가는 문화도시 테이블'에 이어 보다 폭넓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일 오후 3시 리호호텔에서 '문화도시 광양 거버넌스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거버넌스 원탁 회의는 '문화교역도시 광양, 문화시민의 손으로'라는 주제로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협의체 위원들과 문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행정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어린

이?여성, 청년, 다문화, 경제산업, 문화예술,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담아낼 예정이다. 전문가 특강과 시민 기획 프로그램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시민 주도의 문화도시 조성의 의미를 조명하고, 분야별 9개 원탁에서 '시민이 생각하는 문화도시 필수 요소들'과 '문화도시를 위한 시민 행동' 2가지 소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제안된 내용은 문화도시 조성계획 신청서와 이후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순천시, 제17대 임채영 부시장 취임

"시민이 행복한 순천만들기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순천시는 1일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임채영(전)도민안전실장이 제17대 순천시 부시장으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한 임채영 부시장은 1996년 지방고시로 공직을 시작해 보성군 부군수, 전라남도 경제과학국장,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하고 이번 인사발령으로 순천시 부시장에 보임됐다. 임채영 부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이날 오후 2시에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무를 시작하고 집필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추진현황 등 주요 사



업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현안 업무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임채영 부시장은 "허석 순천시장을 도와 순천시 2천여 공직자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행복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